

봄 바람

Bom Wind
Bom Wish



CONTENTS

01	발간사	전은정 대표 진짜 원하는 건 더불어 성장하는 안정적인 공간
02	사옥 히스토리	봄이 더봄빌딩에 정착하기까지 창립 8년 만에 사옥시대를 열다
04	2023 보머 서베이	더봄, 새로운 추억이 쌓여가나 봄
06	보머 서베이 리포트	AI 활용은 이미 대세 ... 챗 GPT, 네이버 클로바노트 순
08	봄과함께 인터뷰(1)	피알봄의 10년 '자기' 한국오노약품공업 최호진 대표 "제약사는 신약 파이프라인 못지않게 인재 파이프라인이 중요하죠"
12	신설본부 탐방	전격 공개하는 DD본부 사용설명서
14	봄과함께 인터뷰(2)	배장환 충북대병원 공공의료 부원장 "심혈관계 질환은 '사회적 보살핌'을 필요로하는 병"
18	봄과함께 칼럼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일화 선물하기"
20	올해의 보머	김명숙 경영지원실장 "좋은 동료는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22	2023년 하이라이트	

발행인 전은정
편집인 신혜진
편집장 정수현
편집고문 이필재
기획, 취재 전은정, 신혜진, 정수현, 김윤진, 김혜원, 김혜민
디자인 지가을, 강레모

진짜 원하는 건 더불어 성장하는 안정적인 공간

피알봄 구성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에 사옥을 마련했습니다. 방배동의 5층짜리 빨간 벽돌 건물입니다.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우리 회사 규모에 맞게 필요한 공간들로 채워졌습니다. 다른 조직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우리끼리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는 건 색다른 느낌입니다. 이제 3개월 됐는데,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 편한 곳'의 이름을, 우리는 전 구성원이 참여한 내부 공모전('새 이름, 기대해봄')을 거쳐 '더봄빌딩'으로 지었습니다.

'사옥 마련'은 저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준비한 일입니다.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는 물론 구성원들에게도 꽤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사옥이 필요한지', '이 타이밍이 좋은 건지', '사옥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리스크는 어떤 게 있는지' 등이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고객사와 미팅을 할 때면 현재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브리핑을 합니다. 그 전에 고객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곤 합니다. 고객사 측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제 요청과 원하는 것 간에 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구성원들이 진짜 원하는 건 하드웨어로서의 '사옥'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구성원들이 함께 꿈꾸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더봄빌딩은 우리끼리 오롯이 일하고, 성장하고, 고민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만이 온전히 누리는 곳이죠.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2024년 1월은 보머들에게 뜻깊은 달입니다. 창립 10년차를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죠. 경제지표면에서는 밝지 않고, 경기도 좋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피알봄의 매출 목표만 본다면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진짜 원하는 방향을 놓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모두 잘 알면, 어려움이 있어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마다 원하는 것들을 이뤄가시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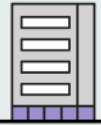
2024년 1월 19일

대표 **전은정**



봄이 더봄빌딩에 정착하기까지

창립 8년 만에 사옥시대를 열다



글 김해원

오피스텔 같았던 한라클래식

한라클래식 시절은 오피스텔 방 하나 크기의 작은 사무실이었다. 지금 더봄빌딩 한 층보다도 좁았다. 그 작은 공간에서 옹기종기 모여 일했다. 한라클래식에서 창립 1주년을 맞았다. 모두 함께 모여 파티했던 기억이 새롭다.



한라클래식의 첫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창립 1주년 파티

2015

'피알봄의 모태' 디오빌

디오빌은 만 8년 전 피알봄이 창립된 의미 있는 장소이다. 구성원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창립 때부터 함께한 보머들이 있기에 현재의 피알봄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2015

2016-2017

'벚꽃 명소' 테헤란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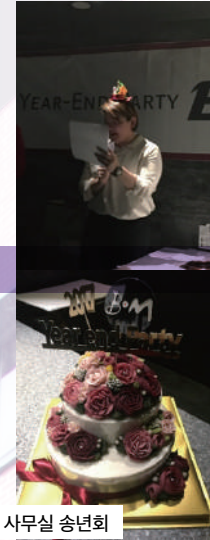
테헤란빌딩으로 이사하면서 드디어 한 층 전체를 사무실로 쓸 수 있게 됐다. 봄이면 빌딩 앞 대로변에 벚꽃이 예쁘게 피곤 했다. 여의도나 석촌호수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회사 앞이 바로 벚꽃 명소였으니까.

테헤란 빌딩 앞 벚꽃길



'언덕 위의 집' 역삼역 건물

역삼역에서 언덕배기를 올라가면 만나는 건물. 그 덕에 출퇴근할 때마다 저절로 운동이 됐다. 건물 옥상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피알봄 옥상 바비큐의 효시라고 할까?



역삼역 사무실 송년회

2018-2019

2019-2023.10

'사옥 시대'를 연 더봄빌딩

지난해 10월 피알봄은 현재의 더봄빌딩에 입주했다. 이 아담한 신축 건물의 1층부터 5층까지 전층을 쓴다. 옥상도 온전히 피알봄 구성원만 쓸 수 있다. 주변에는 현충원, 한강공원 등 머리를 식힐 수 있는 다양한 핫플레이스가 있다. 방배동 카페골목이 지척. 더봄빌딩에서 펼쳐질 피알봄의 앞날을 기대하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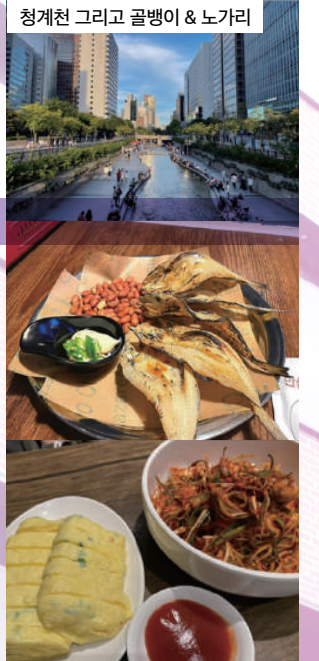
더봄 빌딩 이사 기념 케이터링과 축하선물

2023.10-

가장 오래 머문 을지로입구역 그레이츠청계

을지로입구역 그레이츠청계는 피알봄 창사 이래 가장 오래 머문 건물이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추억을 남겼다. 종각역과 을지로 입구의 중간. 점심시간이면 밥을 먹은 후 청계천으로 나가 담소를 나누곤 했다. 또 을지로 하면 떠오르는 골뱅이와 노가리! 포장마차 안주들. 팀 회식 때 빠질 수 없는 메뉴이자 소중한 추억이었다.

청계천 그리고 골뱅이 & 노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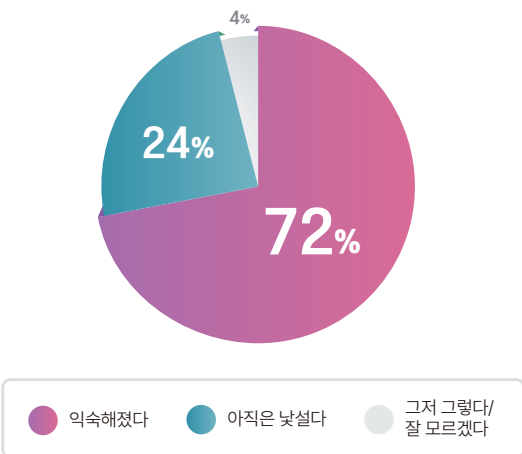


더봄, 새로운 추억이 쌓여가나 봄

글 김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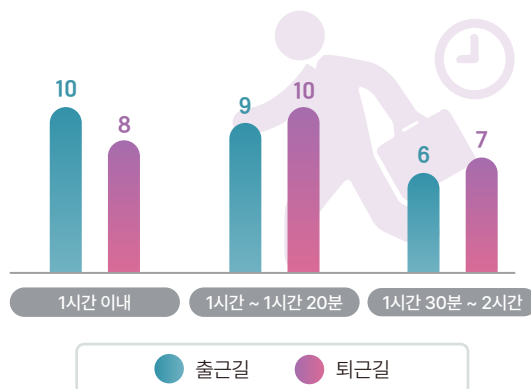
웃장에서 오랜 잠을 자던 룡패딩을 꺼내 입었다. 피알봄이 방배동에 처음 상륙했을 땐, 아직 추위가 찾아오기 전이었다. 이제 코끝이 시리다. 지난해 10월, 방배동에 처음 입성한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진다. 그 새 보머들은 소중한 방배동의 추억이 차곡차곡 쌓였다. 어느덧 익숙해진 우리의 방배살이, 보머들에게 방배동 신사옥에서의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Q 방배동으로의 출퇴근에 익숙해지셨나요? 아니면 아직 낯서신가요?



대부분 보머들에게 평일 첫 일과는 아무래도 출근이 아닐까? 새 공간으로 찾아 오는 게 어려워 지도를 검색하곤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보머(72%)가 출근길이 익숙해졌다고 한다.** 여전히 출근길이 낯선 보머(24%)도 있다. 하지만 금세 나만의 출근 루틴을 찾아가지 않을까?

Q 평소 출퇴근 시 소요 되는 시간은?



다수의 보머들은 **50분을 달려 출퇴근을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1시간 10분이 가장 많았으며, 최장 출퇴근 시간은 무려 2시간 10분이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들 전한다.

Q 회사 주변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은 어디인가요?



맛있는 점심은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새로운 지역에서의 맛집은 어디일까? 보머들의 추천을 모아보았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식당은 화객(중식)과 시울돈(돈까스)이었다.** 두 식당 모두 회사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가까운 식당이다. 가까운 곳에 맛집이 있다는 것은 오전 시간을 설레게 한다. **다음으로 많은 추천을 받은 곳은 모요리(일식)다.** 이자카야라고 하지만, 보머들은 입을 모아 모요리의 돼지고기 부추덮밥을 추천했다. 그 외에도 이수곱창, 행복분식, 미노루, 오로지라멘, 멘쇼우라멘 등이 언급됐다. 오늘 점심이 고민된다면 옆자리 보머에게 슬쩍 추천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Q 회사 주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페는 어디인가요?

식후엔 커피를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보머들이 **가장 자주 찾는 카페는 회사에서 도보 2분이면 도착하는 일상카페이다.** 무려 전체 응답자의 40%가 일상 커피를 추천

했으며, 응답자 '매미'는 오토라메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추천을 받은 곳은 마지드도로시(28%)였다. 사장님의 살가운 인사와 고소한 버터향, 꾸덕한 디저트가 매력적인 곳으로 한 번 방문한 보머들 사이에선 재방문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마지드도로시의 메뉴는 사장님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운이 좋으면 사장님의 역작을 맛볼 수 있다.

신사옥 서베이 새로운, 보머들만의 공간이 만들어진 만큼 신사옥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온전한 보머들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있다. 왠지 지킬까 걱정했던 엘리베이터를 떠나 찾아온 한적하고 여유로움 가득한 방배동, 보머들에게 방배동 신사옥 '더봄빌딩'은 어떤 공간일까? 보머들에게 신사옥에 대한 소중한 소감을 들어보았다.

Q 우리 사옥 더봄빌딩은 오로지 보머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전 사무실과 비교할 때, 더봄빌딩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다수의 응답자가 독립적인 공간이라 좋다는 점을 꼽았다. 응답자 중 '백현최'는 층간소음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좋은 점으로 언급했다. 무엇보다 '감자'를 포함해 '지갈', '얼큰언니' 등 많은 보머들이 엘리베이터를 다른 사람들에게 치이며 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다고 답했다. 혼자 쓸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도 많은 보머들이 선호하는 더봄의 메리트였다.

'홍삼', '나는솔로64기예비지원자' 등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 분위기를 선호하는 보머들도 있었다. 특히 '돼지감자'는 출퇴근길에 보는 한강을 꼽았다.

1층에 자리한 캔틴의 좋은 점을 공유한 보머들도 있다. '펍시콜라'는 캔틴의 큰 티비를, '합장'은 넓어진 공간을 꼽았다. '토끼'는 캔틴이 예뻐 커피를 마시러 자주 간다는 비밀(?)도 공유했다.

그밖에 층별 잠금장치로 보안에 대한 염려가 없는 점, 업무 공간 분리로 실내용도 조절이 용이한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신작'을 비롯한 여러 보머들은 우리만의 프라이빗한 루프탑을 언급했다. 요즘은 날씨가 쌀쌀해 올라갈 업무가 나지 않지만, 따스한 봄이 오면 가까운 보머들과 함께 커피 한 잔 할 분위기 있는 공간으로 떠오를 매우 기대되는 공간이다.

Q 친구들(또는 연인)이 놀러온다면, 회사 주변에서 어느 식당(& 카페)에 데려가고 싶나요?

다양한 식당과 카페들이 언급됐다. 응답자 중 '나는솔로64기예비지원자'는 **혼키(일식)를 추천하며 감태 차돌박이 오차즈케라는 메뉴 이름을 함께 남겼다.** 또 응답자 '알잘딱깔센'은 **서호김밥을 추천하며 김치수제비와 함께 먹을 것을 신신당부 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시울돈과 마지드도로시, 그리고 화객과 모요리는 한 번 더 언급됐다.



Q 1층부터 5층&옥상 중 가장 '애정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응답자 중 **44%가 1층 캔틴**을 꼽았다. '아이서먹고싶다', '십팔번전역' 등 여러 보머들이 캔틴의 통유리가 주는 개방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예쁘게 꾸며진 분위기가 좋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3-5층 사무실(40%). '구찌깡'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기에 애정하는 공간이라고. '더보머'는 사무 공간에 창문이 생겨 환기가 용이한 점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했다. '알잘딱깔센'은 층고가 높은 사무실에서 일하니 성공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능력있는 직원이 된 느낌이라고 귀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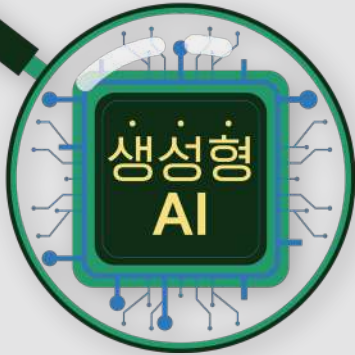
Q 그렇다면 가장 손보고 싶은 곳은 어디이고, (내가 손본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이번에도 캔틴(20%)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우선 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고 싶다는 응답이 있었다. 개방적인 통창 탓에 소음과 과도한 개방감이 느껴져 아쉽다는 답변도 있었다. 사무실의 삭막한 분위기를 바꿔줄 소소한 소품을 놓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다. 화장실에 사용 중 풋말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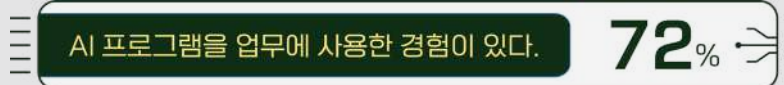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더봄빌딩에 대해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모아진 건 보머들이 이 공간을 '우리'의 공간으로 생각하며 애정하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 사무실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우리만의 이 공간이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가득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AI 활용은 이미 대세 ... 챗 GPT, 네이버 클로바노트 순

글 김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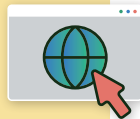


2023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묻는다면 거의 백이면 백 생성형 AI를 첫손 꼽지 않을까?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챗 GPT(Chat GPT)의 상용화를 시작으로, 우리 일상 곳곳에 AI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피알봄도 예외가 아니다. 보머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 응답자의 72%가 AI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보머들의 AI 프로그램 활용 실태를 알아봤다.



합장

"레퍼런스 조사를 하는데, 단순 웹 서치로는 필요로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챗 GPT에 물어봤어요."



황치즈소금방

"명령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고, 가끔 답변에 오류가 있습니다."

돼지감자

"아직은 (챗 GPT의 답변이)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더블 체크를 거쳐야 하는 점이 불편해요."



헬스케어 PR의 생명은 정확한 레퍼런스. 신뢰할 만한 레퍼런스를 토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보머들은 자료 작성 중 많은 시간을 레퍼런스 서치에 할애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합장'은 챗 GPT의 도움을 받았다. 원하는 내용을 질문하면 곧바로 답변을 해주는 구조 덕에 신속하고 편리한 레퍼런스 서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간혹 엉뚱한 답변을 내놓을 때도 있었다.

챗 GPT는 레퍼런스 서치 외에도 다양하게 쓰였다. AI 프로그램 활용 사례 69건 중 챗 GPT 사용은 33건에 달했다. 특히 영문법 검토를 위해 챗 GPT를 활용한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이셔먹고싶다

"챗 GPT는 레퍼런스가 급히 필요할 때나 영어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해요."

나는솔로64기에비지원자

"시간과 품이 적게 들어 효율적이기도 하고, 외국어 사용과 관련해 정확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더군요."

영문 리포트를 작성하던 '더보머'는 챗 GPT를 사용해 리포트를 한 번 더 검토한 후 보고 메일을 보냈다. 전문가 검수를 거치기 어려운 일상적인 업무에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평했다.



챗 GPT 다음으로 보머들이 가장 많이 활용 한 것은 26건의 사례가 조사된 **네이버 클로바노트**였다. 특히 인터뷰 디테이션 업무 활용도가 높았다. 사실 1시간 안팎 분량의 인터뷰 녹취록을 다 듣고 받아쓰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체력 면에서도 버겁다. 클로바노트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 그러나 의학 용어, 영어 단어(인식 언어 한국어 기준) 등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녹음된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꼼꼼한 윤문이 필수적이다.



팍시콜라

"직접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을 대신해 주고, 결과물이 신뢰할 만합니다."

백현치애

"전문 용어나 영문이 그냥 들리는 대로 적히는 게 아쉬워요."

고객사와의 미팅 때도 **네이버 클로바노트**의 도움을 받았다. '구찌깡'은 미팅 내용이 담긴 클로바노트를 복기하면서 업무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구찌깡

"내가 기억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더블 체크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신뢰성·정확도는 부족 ... 100% 의존하기보다 보조 용도

이밖에 그램머리(Grammarly)를 통한 영문법 검토(7건), Bing 챗(Bing Chat)을 통한 레퍼런스 서치(2건), 영문법 검토(1건) 등의 사용 사례가 조사됐다. 영문법 검토 및 영작을 위해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례는 총 27건에 달했다. 다국적 제약사가 주요 고객인 우리 회사 특성상 정제된 영문 작성을 통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보머들의 의욕이 었보였다. 보머들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지만, AI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결과물에 대해 교차 검증과 교정 교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익명의 보머

"아직 결과에 대해 100퍼센트 만족하지는 못하고 서포트를 받는 정도? 특히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팍시콜라

"아직 사람만큼은 못해, 결과물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어요."



- 빠르게 원하는 자료를 찾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할 수 있어요
- 명령어가 정교해야 하고 답변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해요



- 인터뷰 디테이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 전문 용어와 영어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요



- 문서 작성 중 실시간으로 영문법을 수정할 수 있고 호환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 문맥을 고려하지 않아 긴 문단의 영문법 검토는 어려워요

피알봄의 10년 '지기' 한국오노약품공업 최호진 대표

“제약사는 신약 파이프라인 못지않게 인재 파이프라인이 중요하죠”

글 전은정



"오노약품공업은 오노만의 방식으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넘어섭니다. 바로 '오노스 웨이(Ono's way)'죠. 오노는 다른 회사의 방식을 카피하지 않고, 특유한 장인 정신으로 제품(약)을 만듭니다. 이 점이 서양 회사들과 많이 달라요"

최호진 한국오노약품공업 대표는 인터뷰 중 오노스 웨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다. "서양은 '슈퍼 플레이어' '슈퍼 루키'를 만들잖아요. 우리 회사는 어떻게 팀이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느냐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막상 오노 안에 들어와서 보니 나름의 미덕이 있더군요."

최호진 대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같이 했느냐를 많이 보는 게 오노스 웨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2000년 제약업계에 조인했다. 노바티스 미국에서 컨슈머 제품 담당으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존슨앤존슨으로 옮겨 의료기기를 맡았다. 2000년대 초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입사, 항암제를 담당한 후 아스트라제네카 싱가포르 지사, 한국엘러간 등을 거쳐 2014년 한국오노약품공업에 몸담았다.

Q1. 어떻게, 어쩌다 제약 산업에서 커리어를 쌓게 되셨나요? 전공자이신가요?

국내에서 상경계열을 전공했고 그 후 미국에서 MBA를 했습니다. MBA 할 때 만난 선배 소개로 제약업계에 눈뜨게 됐죠. 노바티스 미국에서 근무하다 귀국했는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PM을 뽑더군요. 제약은 제가 일하고 싶은 분야였죠. 당시 면접관이 한국화이자제약의 오동욱 사장입니다. 약대 출신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저를 채용한 이유를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이 훨씬 포텐셜이 있어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항암제 시장에 입문해 23년 동안 항암제를 담당했습니다. 전문성도 생겼죠. 제약산업에서 일하는 데 전공은 상관없습니다. 배움에 대한 역량(Learning Capability)만 있으면 비전공자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Q2. 비전공자에게 희망적인 이야기군요. 오노약품공업은 업력이 상당히 긴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 진출은 좀 늦었지만, 1717년 창업해 역사가 300년 넘는, 나름의 레거시가 있는 회사입니다. 혁신 신약(First-in-class) 개발에 집중해 면역항암제 '옵디보'를 개발했죠. 오노는 해마다 매출의 2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R&D 중심의 회사입니다. 이 점에서 굉장히 독특하죠. 또 오노만의 방식으로(Ono's way)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Q3. 한국오노약품공업은 설립된 지 10년 됐고, 본사 차원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큰 것으로 압니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은 오노약품공업이 처음 설립한 글로벌 지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만형 같은 역할을 해요. 한국 지사가 설립된 후, 대만 지사가 생겼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에 리서치 센터가 있고, 미국 진출도 준비중이에요. 일본계 회사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듯 한 가지를 추진해 성공하면, 그때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사실 오노약품공업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근당만큼 대표적인 제약회사죠.

Q4. 오노약품공업을 비롯해 일본계 제약기업은 나름의 특징이 있다고 볼니다. 어떤 매력력이 있나요?

우선 '사람 중심의 회사'입니다. 한 마디로 종신고용이 가능하죠. 다음으로 의리와 신뢰를 중시합니다. 피알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회사와 10년째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Q5. 기업은 빨리 변화하고 빨리 성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람 중심의 경영이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고 보십니까?

과거 저도 굉장히 태스크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대표를 하면서 확인하는 건, 결국엔 모든 걸 이루는 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사람 중심 경영을 합니다. 때로는 기다려 주죠. 그럼에도 빠르게 성장합니다. 300년 이상 되는 기업의 역사에 나름의 기개(氣概)가 녹아 있어요.

Q6. 2020년 대표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 후 가장 주력한 건 무엇이고, 어떤 성과를 내셨나요?

주력한 건 ▲개인의 교육과 조직 개발 그리고 ▲새로운 제품의 급여 화입니다. 또 한국오노약품공업 최초로 회사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전 구성원이 참여해 이틀 간 바텀업으로 만들었어요. 이 비전에 맞춰 탤런트 개발을 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했죠. 그 결과 더 조직다운 조직으로 변모했습니다. 성과 면에서는 환자가 신약을 경제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급여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면역항암제(옵디보)는 여러 암종에 대해 많은 적응증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엔 우리나라에 많은 위암 환자들이 최초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 협상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저를 끝까지 버티게 한 건 사실 비즈니스의 성장보다 이 약을 기다리는 환자들이었습니다. 덕분에 급여화에 성공했죠.

Q7. 대표님은 미국 유학파로서 영어도 잘하시지만, 일본어도 잘하시는 거로 압니다. 일본계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일본어도 잘하나요? 나름의 외국어 공부 비법을 소개해 주시죠.

일본계 회사에 근무하지만, 일본어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도 있고, 많은 일본계 기업 대표들이 일본어를 잘합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일본어를 공부했는데, 그때 이렇게 유용하게 쓰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시절 시세이도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그때 '난 일본 회사 타입은 아니다' 싶었어요. 이렇게,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웃음) 일본어를 배운 덕에 오노에서 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노는 항암제 전문가면서, 일본어와 영어가 되는 인재를 필요로 했거든요. 흔히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꾸준히 하는 사람은 누구도 못 이깁니다.' 제가 우리 구성원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죠. 어학은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정답도 없어요.

Q8. 대표가 되면 고민의 방향과 폭이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대표님의 요즘 최대 관심사와 고민은 뭔가요?

제약회사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인재 파이프라인이 중요하죠. HR 부문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다음 세대 리더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가 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또 본사와 한국 직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잘 연결하고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도 중요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르다 보니 눈높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눈높이 맞추는 게 저의 일이지요. 더욱이 오노는 일본 기업이라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Q9. 대표는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자리입니다. 평소 체력 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나름의 비법을 공개해 주시죠.

일단 아침에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수영을 오랫동안 해왔고, 요즘도 1주일에 한두 번은 합니다. 주말에도 반드시 운동

을 하려고 해요. 체력이 받쳐줘야 일도 잘할 수 있죠.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는 비교적 잘 하는 것 같아요. (웃음) 누구나, 매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일 또는 사람 관계죠. 그런데 일은 일종의 사물이잖아요. 사물이 날 어떻게 할 순 없으니까,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제대로 풀어야죠. 대화를 해서 풀든, 아니면 싸워서라도.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때 일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돌아켜보니, 평소 일을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했어요. 그 후 오노에 입사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과거엔 AP 헤드가 목표였는데,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커리어 비전,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겁나는 게 없어지더군요. 대하기 어려운 교수님을 만나도 편해지고, 어떤 발표를 하든 자신이 생겼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Q10. 제약업계 리더 중 한 분이십니다. 국내 나아가 글로벌 제약 업계의 현안으로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결국 약값이죠. 글로벌 제약회사는, 혁신 신약을 개발해 국내에 공급합니다. 이 혁신 신약을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으로서 좋은 약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내 약가가 너무 낮으면, '코리안 패싱'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지요.

Q11. 업계 후배들, 나아가 제약업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미래 세대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제약업계에서 일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우선 저 같은 비전공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저야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지만, 좋은 약을 개발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요즘 청년들 정말 바쁘죠. 스펙 쌓고 운동하랴, 투자도 하랴. 이들 미래 세대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일에 20년간 투자하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한 분야에서 구두 뒷굽을

20번 갈면 그 분야 최고수가 됩니다. 코인·주식에 투자할 게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세요. 시간 투자에 대한 보상은 복리로 돌아와요. 연차가 쌓이면서 봉급 등 보상이 복리로 커집니다. 첫째, 시간을 투자하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컨피던스가 생깁니다. 둘째,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경험은 곧 구력이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언젠가 전문가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전 대표님도 PR만 20년 넘게 하신 전문가로, 지금 업계 탑 5에 들어가시잖아요. 저도 뜻하지 않게 항암제 마케팅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특히 고형암의 경우 20년 넘게 말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돼 있더라구요.

Q12. 대표님을 뵈는 지 20년 됐습니다. 마케터였지만 PR도 상당히 잘 아시는데, 제약산업에서 PR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약분야의 PR은 전문의약품 정보를 환자, 특히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이죠. 우리가 아플 때 의사의 진료를 받지만, 좋은 약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절실해요. PR이 그 경로 중 하나이고, 언론이 매개체죠.

Q13.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PR'은 어떤 회사인가요?

'한결 같은 회사'로, 늘 고객 중심으로 일을 하죠. 고객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스테이크 홀더나 기자들도 한결같이 잘 아우르죠. 지난 10년간 우리 회사의 좋은 파트너였다고 생각해요. 저도 유수의 PR 회사들과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Q14. 고객사로서 PR'에 당부하시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지금과 같은 꾸준함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파트너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사옥 입주도 축하드립니다.



전격 공개하는 DD본부 사용설명서

지난해 피알봄에 새 바람이 일었다. DD본부가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헬스케어 전문 PR 업계의 틈/보/잡 부서!
 대체 왜 생겼지? 지난 한 해동안 무슨 일을 한 거야?
 보머들도 궁금한 Digital-Design 본부 사용 설명서를 전격 공개한다.

글 신혜진 | 그림 강례모



'뭘, 돼지털? 아니, 디지털!'

대박 광고의 소재로 쓰일 만큼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로부터 20여 년,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사이 디지털은 우리 삶의 의미 있는 일부가 됐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복병의 등장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너머 온라인 세상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됐다. 단적으로 SNS의 팔로워 수가 개인과 기업의 평판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됐다.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정보로서의 가치를 판가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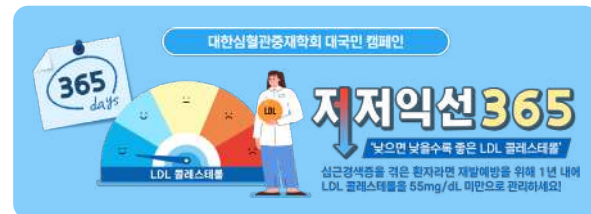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한발 앞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헬스케어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쯤 되면 피알봄의 새로운 부서명에 '왜 알파벳 D가 돌이나 들어가는지' 감이 오지 않을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눈에 띄는 커뮤니케이션! 2023년 DD 본부가 새롭게 문을 연 목적이다. 그래서 대체 뭘, 어떻게 한다고? 우선 SNS 마케팅에 전문성이 있는 디지털 팀과 감각적인 이미지로 승부하는 디자인 팀이 만났다.

2023년 DD 본부가 선정한 베스트 컬렉션을 통해 2024년 DD본부 활용 팀을 입력해 보자.

★ Digital 팀 숫자로 본 BEST 컬렉션

1 심심당부



소개 2021년부터 해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KSIC)가 진행한 유튜브 영상 시리즈
 특징 2023년 시리즈는 환자 사연을 기반으로 한 재연 영상으로 제작, 관심도 UP
 조회수 약 3만 5000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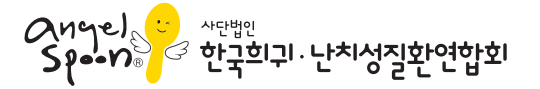
SK바이오사이언스 링크드인



소개 백신·바이오 국내 대표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미션과 활동을 알리는 글로벌 SNS 채널
 특징 5개의 기업 핵심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카드 뉴스, 직원 인터뷰 영상 및 모션 그래픽을 활용해 다양한 기획 시도
 조회수 2023년 초 팔로워 2000여명 (12월 현재 팔로워 만명 돌파)

3

엔젤스폰



소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유튜브 채널
 특징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희귀질환 의심 증상부터 진단, 치료 및 관리법까지 "전문의가 답하는 희귀질환" 영상 제작
 조회수 시즌1 7편 & 시즌 2 14편 (누적 조회수 53,613회 / 24. 1. 10)

+ 틈새 공략

사소한 것 같지만 꼭 필요한 그것, 바로 사내 제작물이다. 소소하게는 사내 이벤트 홍보용 포스터 제작에서 온라인 이벤트 진행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사내 교육 및 캠페인에 쓰이는 환자 인터뷰 영상 및 각종 행사 영상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자체적으로 소화한다.

★ Design 팀 2023년을 마무리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1

50대연구소 런칭 준비



채널 정체성을 담아 로고부터 자막 서체 디자인까지 많은 공을 들여 더욱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

2

한국오가는 여성건강 매거진 보이싱



2023년 한해 동안 실행한 가장 큰 규모의 작업으로 가장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음. 피알봄의 PR & 디자인 팀, 한국오가는 커뮤니케이션 팀 등 세 팀의 협업으로 만들어낸 대작

3

SK바이오사이언스 링크드인 콘텐츠



매주 업로드되는 루틴한 콘텐츠로, 기업의 핵심 콘텐츠를 시각화하는 데 중점을 둔 작업. 50주의 콘텐츠 모두 제작 완료!

배장환 충북대병원 공공의료 부원장

“ 심혈관계 질환은 ‘사회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병 ”

글 신혜진

디지털화에 관한 고민에서 자유로운 분야가 있을까? 의료계도 다르지 않다. 각종 질환별 학회는 물론이고 병원과 의료진이 SNS를 활용해 질환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한 콘텐츠들이 늘어날수록 고민도 깊다. 갈수록 광활해지는 정보의 바다에서 어떤 의료 정보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충북대학교병원 공공부문 부원장으로 있는 배장환 심장내과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배 부원장은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는 편이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유튜브가 워낙 큰 바다잖아요. 검색창에 '협심증'이라고 입력하면, 알고리즘 영향으로 대부분 그동안 많이 본 영상이나 검색하는 사람의 성향에 맞춘 흥미 위주의 영상이 많이 뜨죠. 의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영상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재미가 없는 탓도 있어요. 그래도 가끔 "교수님 유튜브에서 봤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면 '망망대해에 이쑤시개 던지는 식이라도 꾸준히 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부원장님을 소개하는 '3가지 키워드'로 뭘 꼽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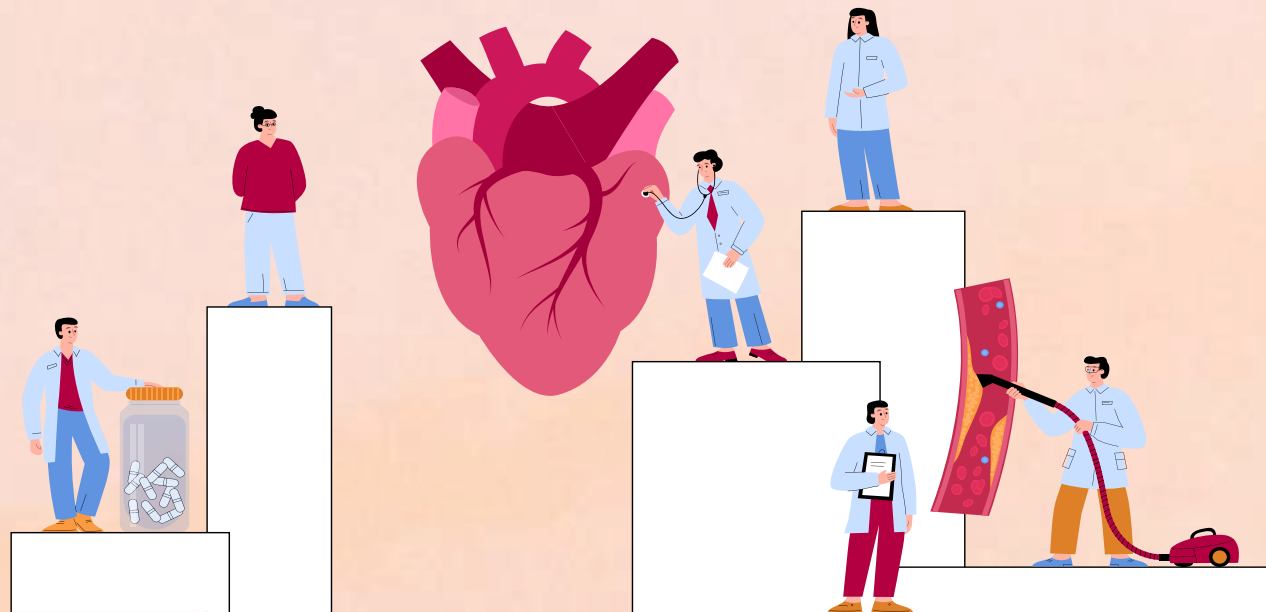
'배짱이, 시골 심장외과, 오버'입니다. 배짱이는 동기들이 붙여 준 별명이에요. '여름에 기타 치고 놀다 겨울에 얼어 죽을 녀석'이라는 거죠. '쓸데없이 배짱이 너무 좋다'고 배짱이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배씨이기도 하고요. '시골 심장외과'는 청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대학을 나와 인턴-레지던트를 마쳤고 지금도 청주에서 환자를 보죠. 그런데 제 전공분야가 심장내과예요. 급성 심장질환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병원 인력, 기술, 시설이 세 가지죠. 지역일수록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만성병 환자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골에도 심장질환을 치료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더불어 이런 의료의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칭 '시골 심장외과'가 되었습니다. '오버'도 친구들이 붙여 준 별명인데, 제가 사실은 '관중'입니다.

그동안 심혈관질환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에 꾸준히 출연하셨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왜 심혈관질환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사망통계를 보면 성인의 경우 가장 많은 사망원인 질환이 암입니다. 두 번째가 심장질환, 세 번째가 뇌졸중이죠. 심혈관질환은 허혈성 질환, 특히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이 많습니다.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는 남자의 경우 45세 이후, 여자는 55세 이후에 많아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하는 나이에 사망하는 거죠. 문제는 남은 가족들입니다. 가장의 죽음은 경제력 상실로 이어지고 한 개인을 넘어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둘째, 허혈성 심장질환은 동맥경화증에 의해 발생하고,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음주, 흡연 등입니다. 우리 사회의 생활 지표를 반영하는 병이라는 거죠. 단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수입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생각보다 수입이 적은 지역에서 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사회가 나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예방도 가능한 병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질환은 생각보다 흔한 병이에요. 심혈관계 질환은 중한 병이면서 동시에 발생률이 높아요. OECD 국가의 1번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증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잘 살게 되면 암보다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심혈관계 질환은 한 마디로 '사회적 보살핌'이 꼭 필요한 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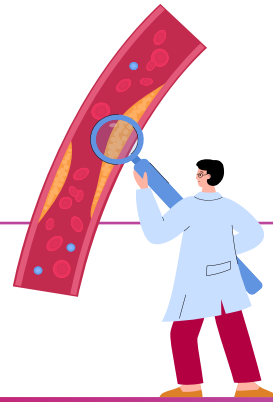
📌 <피알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랜선진료소>에 흔쾌히, 여러 번 출연하셨습니다. 최다 출연자가 아닐까 싶은데, 환자 반응이 가장 좋았던 콘텐츠는 뭔가요?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심장 재활하는 방법'입니다. 젊은 환자일수록 퇴원하고 나면 병원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 심근경색증은 대부분 일찍 시술 받으면 멀쩡해 보입니다. 그래서 '심장재활하러 간다'고 하면 눈치가 보이죠. 이런 분들에게 <랜선진료소>를 알려드립니다.

📌 사비를 들여 환자들에게 심혈관질환에 관한 영상을 홍보하기도 하신다고요?

환자들에게 명함 사이즈의 카드를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심혈관질환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추천하는 카드였어요. 제가 대한심장학회·대한심혈관중재학회 회원인데 이 두 곳이 운영하는 채널들의 QR 코드를 넣었고, <랜선진료소>도 소개했죠. 진짜 믿음만한 콘텐츠거든요. 세 채널의 QR 코드가 인쇄된 카드를 회진 때 환자들에게 나눠 드립니다. 제가 직접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드리기도 해요. 다음날 회진 가면 영상을 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환자도 있어요.



📌 이런 일까지 하시는 게 '심혈관질환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병'이기 때문이겠죠?

그럼요. 심근경색증으로 한 3일 입원하면, 환자들이 둘째날, 셋째날 조금 지루해 해요. 바로, 이때가 '에듀케이션얼 모먼트'입니다. 권역 센터에서도 간호사와 코디네이터들이 이때 환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합니다.

📌 교수님 추천으로 랜선진료소 영상을 본 환자들도 있을 텐데, '이런 주제도 다뤄 주세요' 하기도 하나요?

예. 병원에서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운동이에요. 이렇다 보니 환자들이 "교수님과 치료사님이 직접 운동을 하면서 찍어주세요."라는 요청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더라고요. 또 저도 공감하는 요청인데 약 이름만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처방약 패키지를 뜯어서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 약이 아스피린이고요.'하는 식으로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그럼 랜선진료소가 이 두 주제를 다루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2024년 1월에 함께 하시죠.



📌 현재 충북대병원 공공부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활동의 이면엔 '의료의 공공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교수님의 평소 지론을 소개해 주시죠.

공공의료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만들었죠.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질환인데 '자본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나 돈을 버는 진료과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병이죠.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구조는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국가가 돈을 쓰지 않는 건 아닌데, 적절하게 돈을 쓰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 기존의 의료 체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환자를 퇴원시킬 때 재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적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행정적 틀 안에서 복지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한꺼번에 꺾어 해결해주지 못하죠. 문제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의 피해자 상당수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보건 의료와 복지가 서로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 겹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안내할 것인가, 바로 공공의료기 필요한 영역입니다. 국가가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중증질환으로부터 지방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죠. 전 사회적으로 공공의료의 의미를 고민할 때, 현재 벌어지는 지난하고 복잡한 공공의료(혹은 필수의료) 논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일화 선물하기”

글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딸 아이가 초등학교 어린이 집을 다니던 10여 년 전 일이다. 마침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다. 출근할 의무가 없는 내게 아이를 돌보는 역할이 주어졌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머물면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갈 것 같았다. 아이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은 어린이들로 북적였다. 관내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려면 긴 줄을 서야 했고, 점심 먹는 자리를 찾는 데도 꽤 긴 시간을 써야 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탓이었을까? 아이가 평소보다 일찍 칭얼거렸다. 잠이 몰려왔던지 앉자마자 어깨에 머리를 묻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

아이를 안은 채 박물관 밖으로 나왔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았다. 택시 승강장까지 200여 미터를 걸었다. 내 뒤로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줄을 섰다. 택시를 기다리는 줄이 어느새 20여 미터이 어졌다. 20여 분쯤 지났을까, 아이를 안은 두 팔이 저러왔다. 다행히 언덕 밑에서 빈 택시가 승강장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두 아이의 어머니가 줄을 아랑곳하지 않고 새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무질서의 시작이었다. 새치기를 눈 앞에서 목도한 어머니·아버지들이 하나 둘 줄을 벗어나 빈 택시가 올 때마다 앞다투어 문을 열어젖혔다. 난파된 유람선에서 구명 보트에 타려는 것처럼 필사적이었다. 사람들이 차도를 넘나드는데 위험해 보이기까지 했다. 박물관을 막 나온 가족들은 이 모습을 보고 200미터를 이동해 줄을 서려는 시도조차 아예 하지 않았다. 곧바로 택시 잡기 전쟁에 뛰어들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택시를 잡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몇 백 미터를 걸어 버스정류장으로 가기엔 팔이 너무 아팠다. 바로 그때였다. 빈 택시가 언덕을 올라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빨알간 '빈차' 표시를 보고 택시를 세우려는 가족들을 이 택시가 요리조리 피하는 것이 아닌가? 차를 막아서는 가족에게는 창문을 열고 '안 태워요'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상한 택시는 자신을 낚아채려는 수차례의 고비를 넘기더니 내 앞에서 멈추었다.



이상한 택시 기사

그날은 휴일이었지만 출근한 날보다 더한 강도의 노동이 아침부터 시작됐다. 짜증을 억누르고 찾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선 번잡스러움이 더해졌다. 집으로 향하던 택시 승강장에서 마침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이들 앞에서 택시 새치기를 하는 여러 가족의 모습은 세상에 대한 회의까지 들게 했다. 전쟁이 따로 없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온 박물관 앞에서 저런 비교육적인 모습을 보여주다니. 그때 느닷없이 이상한 택시가 내 앞에 멈췄고,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손님, 타세요." 한 것이다.

"압구정동에서 손님을 태우고 용산으로 가느라 국립중앙박물관 앞을 지나던 길이었죠. 사람들이 위험하게 차도까지 나와 택시를 잡으려 했어요. 어린이날 아이들 데리고 나와 뭐 하는 것인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택시 승강장에서 아이를 안고 줄을 선 손님을 봤어요. '어, 이 와중에 줄 서는 사람이 있네.' 용산에서 손님을 내려 드리고 바로 유턴했어요. 줄을 서는 손님은 나라도 꼭 태워 드려야지, 그렇게 된 겁니다."

딸 아이와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그날의 모든 네거티브한 인상을 지울 수 있었다. 그날 밤,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며 곤하게 잠 들었다.

새해 결심을 바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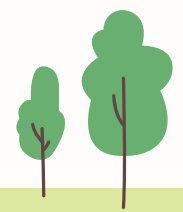
50권의 책을 읽겠다. 2024년 나의 새해 결심이다. 특정 분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그냥 눈길이 가는 책을 읽기로 했다. 두 번째로 마주한 책이 리처드 탈러가 쓴 '행동경제학(박세연 옮김)'이다. 심리학은 물론 경제학에도 별 관심이 없는데 왜 이 둘의 연결을 시도한 책이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거침 없이 책장을 넘기다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작가는 자신의 삶에 도움을 준 주변 사람들의 일화를 군데군데 자연스럽게 녹여 냈다. 세상을 떠난 아모스 교수의 일화는 정말 압도적이었다.

"역사와 지혜는 강의나 역사책이 아니라 일화나 웃긴 이야기, 재치 있는 농담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아모스는 작가보다 더 천재적이었던 그의 친구이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글을 읽는 동안 나는 조건반사처럼 무릎을 쳤다. 살아오면서 내가 감동을 받은 건 거창하게 세상을 구한다며 떠들어대는 구호가 아니었다. 그보다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행동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기억 속에 선명한 건 강의나 역사책이 아니라 훈훈한 일화들이었다.

이 책을 읽는데 10여 년 전의 그 택시 기사가 떠올랐다. 감사한 마음이 새삼 다시 들었다. '50권의 책을 읽겠다'는 새해 결심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는 새해 결심을 바꾸기로 마음 먹었다.

'내 주변 사람에게 작더라도 따뜻한 50번의 일화를 선물하자.'



올해의 보머

김명숙 경영지원실장

좋은 동료는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글 정수현 | 사진 강례모



2023 올해의 보머는 사보제작팀이 회의를 거쳐 김명숙 경영지원실장으로 결정했다. 김 실장은 "은퇴와 맞물려 올해의 보머로 선정돼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랜 기간 봄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곧 퇴직을 하시는데, 어떤 마음인가요?

'시원섭섭'합니다. 20대부터 40여 년 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진정한 나의 삶을 맞는다.' 하는 생각에 시원하고, 그동안 직장 생활이 무척 즐거웠는데 그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섭섭하네요.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활동을 이어오셨는지 존경스럽습니다. 봄에는 어떤 계기로 합류하게 되셨나요?

대표님과 한 회사에 근무한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2015년 봄이 창립됐는데 그 해 9월, 대표님이 같이 일해 보자고 제안하셨죠.

봄에서 약 9년 간 일하셨어요. 실장님에게 가장 의미있는 성취는 무엇인가요?

지금의 봄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렇게 일구신 대표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봄이 성장해온 전 과정이 저에게는 다 의미가 있어요. 업계에서 착실히 신뢰를 쌓으면서 회사가 확장되는 순간마다 정말 기뻐요, 뿌듯했습니다.

봄에 근무하시는 동안 가장 신경쓰신 것은 무엇인가요?

PR 업무의 특성상 보머들은 때로는 밤낮없이 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죠. 모든 구성원이 다 아들, 딸 같이 여겨졌고, 때로는 힘들어 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주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밥은 먹었는지, 별일은 없는지 안부를 물었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대표님이 저를 부르신 배경에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머들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봄에서 스친 모든 인연이 저에겐 다 소중한데요. 퇴사한 후배들에게서도 종종 연락이 와요. 그럴 때면 제가 마음을 나눴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요즘은 취업도 어렵지만,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머들에게 본이 되셨다고 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생활을 하신 노하우가 뭔가요?

저는 정말이지 '직장 생활이 가장 쉬웠어요!' (웃음) 40년 직장 생활을 돌아 보면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성' 같아요. 회사 생활, 정말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버팀목이 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전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40여 년 동안 큰 갈등이 없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건 저에겐 꿈 같은 선물이요 기적이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 제 2의 인생에 대한 멋들어진 계획을 들려 주시죠!

거창한 계획이 없다는 게 함정이네요. 첫 계획은 '휴식'입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긴 여행을 다니지 못했어요. 동생이 있는 미국에 꽤 긴 여행을 가려 합니다. 돌아온 후의 계획은 저의 남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그동안 못한 효도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손자도 챙겨야 돼요. 감당할 역할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역할들이죠.

경영지원팀에, 선배로서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직원들을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일이 워낙 업무 강도가 높아 때로는 '힘내' 라는 한마디만으로도 힘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보다 더 활기찬 경영지원실이 될 거라 생각해요.

보머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주시고 싶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을 할 땐 내가 귀한 만큼 상대방도 귀하기에 존중하면서 해야죠. 그러다 보면 서로 좋은 동료가 되고, 좋은 동료가 옆에 있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보머들 모두가 서로 마음을 담아 소통하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모두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2023 보머 서베이를 통해 아래와 같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너무나도 애정어린 피알봄! 사랑스런 보머들!!❤

9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음이 너무도 소중하고, 또 감사합니다. 부족함도 분명 많았을 텐데, 이해와 사랑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다독이며 오늘의 피알봄으로 성장시킨 대표님께 무한 존경의 마음 전하며, 나이 많은 저를 편견 없이, 엄마처럼 때론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준 모든 보머들 너무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더봄빌딩신사옥으로 이전하는 축복도 받아 더 크고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하고픈 욕심과 아쉬움도 있지만, 또 다른 설렘을 안고 제2의 인생 시작하려 합니다.

“피알봄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따뜻한 봄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모두를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숙 실장은 보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 나무 같은 분이였다. 새롭게 시작되는 실장님의 제2의 삶을 응원하고, 또 축복한다.

"영광스러운 오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보머 일동)

2023년 피알봄 하이라이트

글 김해원

3월

피알봄 유튜브 '랜선진료소' 구독자 5천명 돌파

병원에서 내 이름이 불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과 보내는 시간은 평균 6.2분. 그래서 생겼다. 피알봄의 유튜브 채널 <랜선진료소>는 진료 때 물어보기 어려운 사소한 궁금증부터 검색어로는 찾을 수 없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까지 쉽게 설명해준다. 지난해 3월 기준 구독자 5천명을 돌파했고, 12월 기준 구독자는 7950명. 누적 조회수는 98만 7660회를 달성했다. 2024 랜선진료소의 활약이 기대된다.



4월

피알봄 창립 3000일 기념 치맥파티

지난해 4월 6일은 피알봄이 창립한 지 3000일 되는 날이었다. 3000일 돌파를 자축하기 위해 보머들은 오후 5시에 업무 셔터를 내리고 을지로 소울 푸드의 명소 '하나골뱅이'를 찾았다. '하나골뱅이'는 피식대학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감성 가득한 실내포차. 치킨, 골뱅이, 노가리를 푸짐하게 차려 놓고 다 함께 맥주잔을 들었다. 3000일 만큼 사랑해! 피알봄!

6월

일본 워크샵

6월은 보머들 모두가 기다려 온 달이었다. 코로나 19로 중단된 해외 워크샵을 재개한 때이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떠났다. 우리는 일본 3대 야경으로 꼽히는 하버랜드, 오사카 쇼핑거리와 덴포잔 대관람차, 오사카 성, 교토의 단풍 명소인 청수사를 찾았다. 2박 3일 동안 잊지 못할 뜻깊은 추억을 남겼다.



6월

ASCO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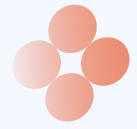
6월은 또 제약업계 종사자로서는 놓칠 수 없는 국제 학술대회 ASCO가 있는 달이다. 올해는 김은영 차장과 신유정 과장이 참여했다. 이번 ASCO는 엔데믹 후 오랜만에 열려 세계 각국에서 수 만명이 운집했다. 5일간 5000여 개의 연구 결과들이 쏟아졌고,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접했다. ASCO 후엔 내부 미팅을 통해 현장감 가득한 생생한 후기와 소감을 들었다.



8월

여름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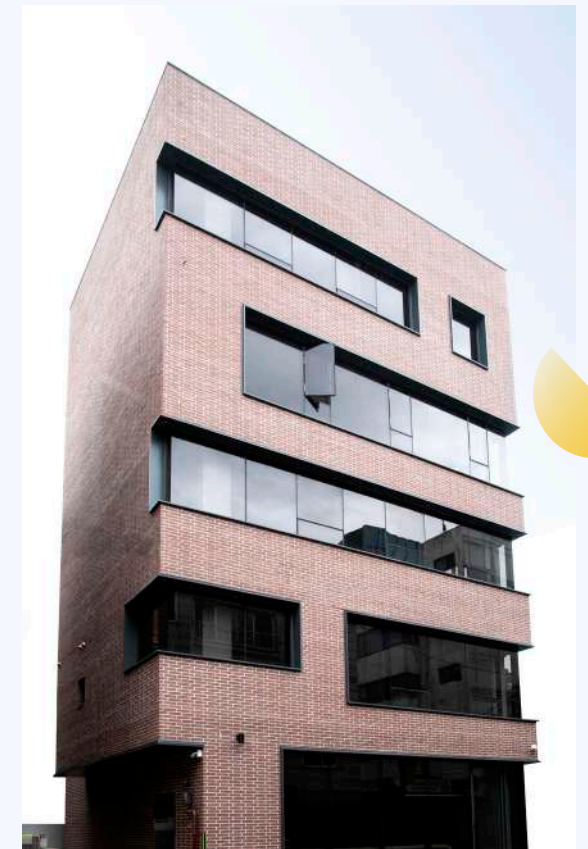
피알봄은 2022년부터 외부 연자를 초청해 시리즈 강의를 듣는 '여름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엔 국립암센터 인공사업팀장이자 의학 콘텐츠 플랫폼 기업 '위뉴' 황보울 대표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해>, 안병민 열린비즈랩 대표의 <브랜드와 브랜딩>, 광명섭 변호사의 <계약 급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들었다. 그에 앞서 5월엔 <부동산 투자의 시작과 핵심 8대 원칙, 부동산 투자 케이스>를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본업인 PR 업무뿐 아니라 직원들의 커리어패스와 재테크에도 신경 쓰는 피알봄! 2024년엔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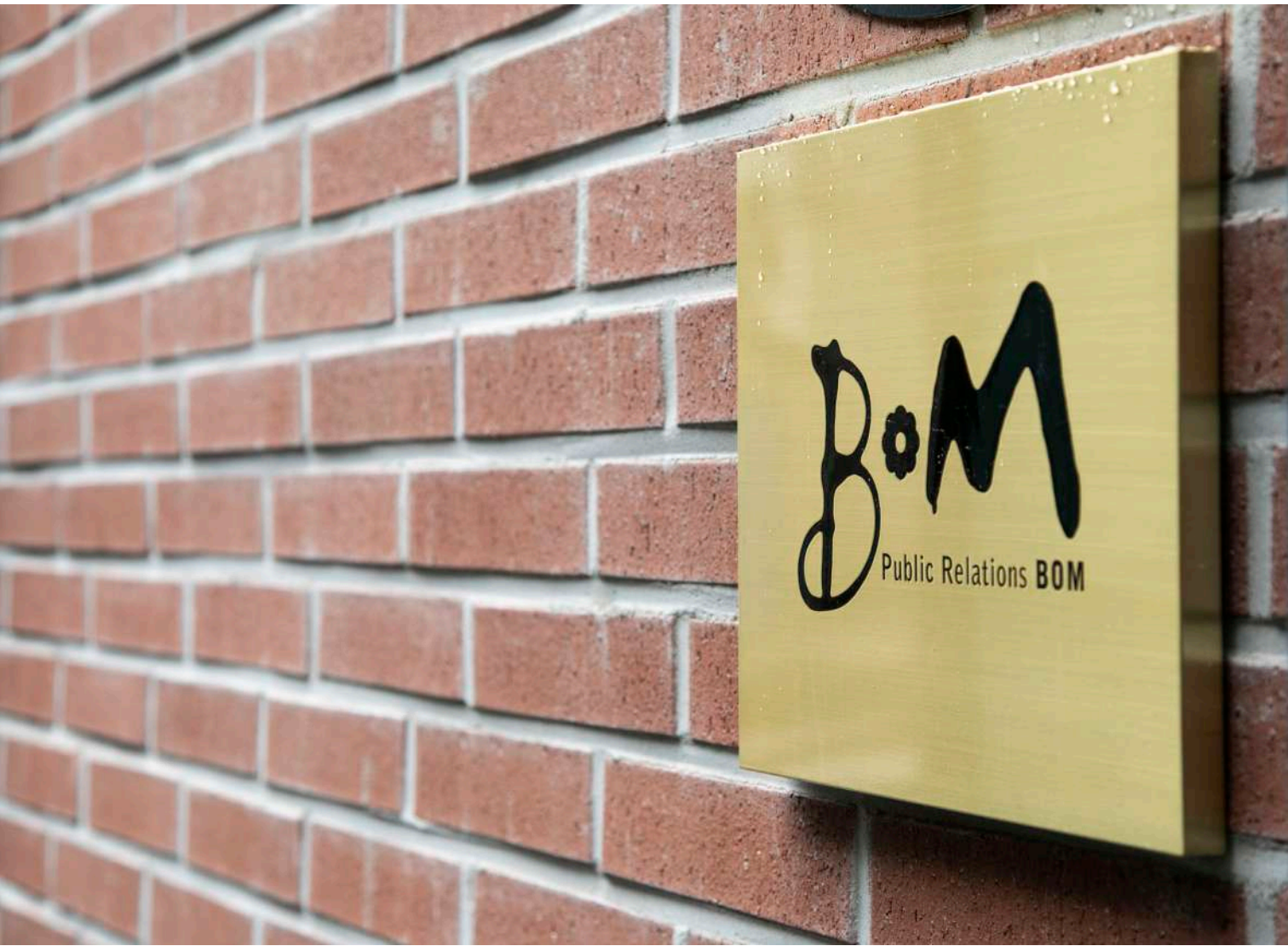


10월

더봄빌딩 입주

지난해 피알봄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더봄빌딩으로의 이전'. 이 새로운 보금자리 1층엔 캔틴, 2층엔 회의실, 3-4층엔 사무실, 5층엔 경영지원실 등이 자리잡았다. 날씨가 좋은 날엔 옥상으로 올라가 바비큐 파티도 할 수 있다.





더봄빌딩 정문 옆 현판



바바리

BOM
Public Relations BOM